최민호 목사(피스메이커교회)

1.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세운 신학자로 칼뱅주의(Calvinism) 세계 3대 신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를 기초한 가르침들의 요약인 신조(creed)를 "신앙의 법칙(regula fidei, regulation of faith)"으로 세운 데 있다. 그는 신앙을 신학의 기초에 두고 있다.

2. 찰스 핫지의 신학에 있어서 기도론의 위치와 중요성

그의 『조직신학』 제3부 20장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에 위치하여 기록하였다. 그는 20장에서 신자가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성경, (2) 성례(聖禮, 거룩한 예식)로써의 세례와 성찬, (3) 기도이다.

3.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일으키는 모든 감정과 욕망의 표현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1) 하나님의 인격성(personality), 즉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것, (2) 하나님의 내재성(immanence), 즉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 (3) 하나님의 통치(government), 즉 그의 선하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성(transcendence)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자발적 행위(spontaneous action)"는 (1)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자연 속에 충만이 나타나며, (2) 때로는 기적(miracles)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real event)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다.

기도의 방식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 덕분에 그 기도는 성취된다.

4.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정하셨다면 그는 그의 복을 우리가 기도하여 받도록 정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를 변경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분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5.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기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삼위일체께서 모두 하나님이시고, 주님(Lord)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으로 호칭할 수 있고, 때로는 송영(doxology)의 예처럼,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특정하여 찬양이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6. 기도할 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에는 경배(**A**doration), 고백(**C**onfession), 감사(**T**hanksgiving), 간구(**S**upplication)가 포함된다. 경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고백은 자신의 죄를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감사는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고, 간구는 구할 바를 상세히 아뢰는 것이다.

7.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

- ① 진정어림 (sincerity): 하나님은 말의 유창함이나 아름다운 표현을 보시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없는 말뿐인 것은 그분 앞에 큰 죄이다"
- ② 경건 (reverence):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고, 그의 위 엄(majesty)에 대한 마땅한 감정이다. 그는 우리 가까이서 친근히 계시지만 그의 권위는 높으시기에 신자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마땅하다. 루터는 이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 많은 아버지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 ③ 겸손 (humility) :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자기인식(self consciousness)dl 겸손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의 하찮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끈질김 (importunity) :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끈질긴 기도를 언급하셨다. (마22.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눅18:5-8 불의한 재판장이 간청을 들음 ; 눅11:5-8 떡을 구하는 친구의 간청을 듣는 벗)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 ⑤ 복종 (submission) :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복종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 ⑥ 믿음 (faith): 우리는 기도할 때 4가지를 믿어야 한다. (a)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b)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c)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 (d)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선하심에 맞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요 14:13, 마18:19)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기도가 "거절"이나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으나 거절하신 것처럼, 고후12:7-9) 이럴 때, 이미 응답이 되었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 ⑦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16:2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15:16b),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14:13a) ...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8. 여러 종류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훈련이며 생각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것은 신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우리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분향단이 되어야 한다. "쉬지말고 기도하라" (살전5:17)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행위(speech)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은밀한 기도, 공동체 기도, 공적 기도로 구별할 수 있다.

(1) 은밀한 기도 (→→ 사적 기도, 골방 기도, personal prayer) (마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종종 기도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셨고(마1:35 새벽 아직도 밝기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새벽기도), 밤새 기도하셨다(눅6: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 철야기도).

(2) 공동체 기도 (→ 가정기도, 모임기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는 가족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가장은 대표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예배의 인도)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기초 가 된다. "가정을 벧엘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소굴이 될 것이다"

(3) 공적 기도 (→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서의 대표기도, public prayer)

교회의 공적 모임은 예배와 가르침으로 구성된다.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이 포함되고, 가르침은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 두 요소는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 예배가 경시되고 가르침이 더 많이 시행되거나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이 예배가 미사로 변질되거나 교사가 사제로 왜곡됨으로 예배의 형식과 제도, 사제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도시대에도 가르침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었듯이 공적 기도는 더 더욱 중요하다. 좋은 설교자가 필요하듯 좋은 대표 기도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다음의 것을 행해야 한다. (1)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진실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져야 한다. 기도로 아뢰는 가운데 감정과 원함이 그 마음 속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2) 그의 마음과 기억은 성경의 사상과 언어로 잘 저장되어야 한다. (→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경에 기초)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경배와 감사, 고백 간구의 언어는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감정과 원함을 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변화시키기에 더 적합한 것은 없다. (3) 기도는 적절한 순서로 해야 한다. 기도의 모든 주제와 내용은 적절한 비율로 고려되어야 한다. (4) 대표기도는 평상 주일예배든, 성례식, 감사절, 금식과 속죄의 날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5) 기도에 사용된 언어가 단순하고, 엄숙하고 정확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6) 기도는 짧아야 한다. 예배가 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무익한 반복 때문이다.

9. 은혜의 수단으로써의 기도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방법을 의미한다.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communication)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로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빌4:7,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을 누린다.

10. 기도의 능력

인간의 일은 물리적 힘으로만 통제(control)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능력(Supreme Power)의 역사로 나타난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능력임을 확고히 믿고, 전제한다. 스코틀랜드 메리여왕은 백 만명의 군대보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John Knox)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